

보도 일시	2022. 6. 29.(수) 12:00	배포 일시	2022. 6. 29.(수) 09:00
담당 부서	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	책임자	과 장 김보람 (044-201-1831)
		담당자	서기관 곽기형 (044-201-1835)

2022년 국산 밀 재배면적 전년 대비 32.7% 증가

- 「밀산업 육성 기본계획」 시행('21) 이후 2년간 56% 증가 -

6월 29일 발표된 통계청 「2022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」에 따르면, 2022년 밀 재배면적은 8,259ha로 전년 6,224ha 대비 32.7%(2,035ha) 증가하였다.

< 국산밀 재배면적 추이 >

(단위: ha, %)

구 분	2000년	2021년 (A)	2022년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C/A)
밀	5,224	6,224	8,259	2,035	32.7

시도별로는 전남(3,277ha), 전북(2,852ha), 광주(892ha), 경남(805ha) 순으로 나타났다.

맥류 품목별 순위에서도 ('20) 쌀보리 > 맥주보리 > 겉보리 > 밀 순에서, ('22) 쌀보리 > 밀 > 맥주보리 > 겉보리 순으로 밀 재배면적이 맥류 중 2번째로 증가하였다.

통계청은 밀 재배면적 증가 원인으로 「밀 산업 육성 정책」 추진에 따른 농업인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.

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산업육성을 위해 '21년부터 「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」을 수립·추진하고 있다.

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 조성('21. 39개소 → '22. 51개소), 수확기 건조저장을 위한 시설 지원('21. 2개소 → '22. 4개소) 및 정부보급종종자 50% 할인공급('21. 1,300톤 → '22. 1,900톤 예정) 등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또한 국산 밀 가격 안정과 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 구매('21. 8천 톤 → '22. 17천 톤 예정) 및 제분·가공지원('22. 신규 16억 원) 등을 추진하고 있다.

밀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국산 밀 생산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밀 자급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농림축산식품부는 밀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.

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 및 건조·저장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밀 생산농가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, 정부 비축을 확대하여 자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
